

남원시 농산물공동브랜드 '춘향애인' 호평

744억6500만원 판매 기록

남원시 농산물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이 올해도 매출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는 평가이다. 춘향애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 참여조직, 춘향골농협, 남원농협, 남원원협, 지리산농협, 운봉농협)에 따르면 춘향애인은 남원농산물의 우수성 입증과 함께 농가소득을 올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9월 말 현재 744억 6,500만원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어 올해 매출 85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춘향애인이 이처럼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청정남원의 자연환경과 철저한 품질관리와 지속적인 홍보 효과와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판매와 유통을 조합에서 맡아줌으로서 농사

에 더욱 전념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천부지(天府之地) 옥야백리(沃野百里)로 불리는 남원은 운봉, 인월, 아영, 산내 동부권 고향지에서 수지, 송송, 주생, 금지 평야지대에 이르는 비옥한 토지에서는 1년 내내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이점을 갖고 있다. 춘향애인은 초창기 딸기, 파프리카, 감자, 상추, 오이, 멜론, 포도, 배 등 8개 육성품목에서 점차적으로 토마토, 오이, 배, 수박, 애호박, 양파 등 전라품목 6개를 더해 모두 14개로 늘어났으며,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을 사용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 더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은 첫째 연인원 2만3,797명을 고용해 인건비로 10억2,300만원을 지출한데 이어 매출이 신장하면서 고용 인력도 매년 늘고 있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으면서 2013년 파프리카, 멜론, 포도, 배 등 951톤을 일본, 대만, 캐나다 등에 수출해 3,578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는 등 매년 수출선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법인은 앞으로 남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춘향애인 브랜드로 출하해 농가소득을 늘릴 계획이며, 1인 소비자 시대에 맞춰 농산물 소포장화와 국내판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해외수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청정 춘향골 남원

에서 사랑을 담아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이라는 뜻을 갖고 탄생한 춘향애인은 올해 607억원의 매출을 올려 도내 9개 조직 중 가장 우수한 성적표를 얻었으며, 2017년 83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다. 한편 춘향애인은 2014년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전국 농산물브랜드 대전에서 12대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선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인 고품질 농산물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법인은 2017년 12월 2017년 농산물브랜드 대전에서는 춘향애인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와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조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오수관촌농협, 원로조합원 게이트볼 대회 '성료'

오수관촌농협은 지난달 29일 오수초등학교에서 제1회 원로조합원 친선 게이트볼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게이트볼대회 대회에는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 한완수 전북도의회부위원장, 이숙계 농협중앙회임실군지부장, 오수관촌농협 이사, 감사 관내 7개면 게이트볼 동호회(남성부, 혼성부) 7개팀 1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진이 참석, 성황리에 열렸다. 김학운 오수관촌농협조합장은 "접차 사자처럼 가는 '효'를 기리고, 농협을 위해 헌신한 원로조합원에게 자부심, 자긍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 서로 정을 다지고 화합하는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수관촌농협은 원로조합원들의 화합 도모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난 1일~2일 남원 예촌에서 2018 서남권 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북, 광주, 전남, 제주)와 합동 워크숍을 했다.

전북인자위, 서남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합동 워크숍

지역별 고용동향 정보 공유·업무 공조 체계 마련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 공동위원장 최정호 정무부지사,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는 지난 1일~2일 남원 예촌에서 2018 서남권 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북, 광주, 전남, 제주)와 합동 워크숍을 했다. 워크숍에는 서남권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담인력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일학습병행제, 지역 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현황 공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명희 컬러인스타대표 초빙, '색'으로 만드는 색다른 일상 컬러테라피라는 주제로 컬러테라피를 통한 내적, 외적 이미지 강화로 긍정적인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각 지역인자위 간 지역 산업별 고용동향을 정취, 향후 업무 추진 및

2019년 사업 발굴을 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협력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서남권 인자위 간 업무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 지역인자위는 지역 및 산업의 주도성이 중요하다는 정책에 의해 2013년 12월 광역단위로 지역인자위 설치,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일학습병행제, 지역 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를 운영기관으로 인력양성 거버넌스로서 지역 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전북인자위 이선홍 공동위원장은 "지난 5월 광주인자위에서 개최한 서남권 인자위 워크숍을 시작으로 전북인자위가 2018년 마지막 워크숍을 했다"며, "지역인자위가 고용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워크숍에 참여한 전담자 간 공조 체계를 통해 향후 업무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한다

전북농협지역본부,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실습교육' 열어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일부터 10일까지 농촌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40명을 대상,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산물 가공식품 실습교육은 농협에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기초 농업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생들의 교육 효율도가 높아 식품 실습교육으로 특화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총 3회 진행, 1회차

는 완주군 마더쿠기에서 쌀을 가공한 케이크와 단호박 머핀을 만들고, 2회차에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김치 돼지고기 두루치기, 메추리알 우유조림 등 생활에 필요한 반찬 만들기를 실습한다. 3회차는 순창고추장익사마을을 방문하여 블루베리 파이, 쇠고기양념고추장만들기, 임실 박사골마을의 쌀엿체험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무주군 안성면에 사는 비티쥬프영(베트남, 23세)은 쌀가루를 이용한 케이크 만들기가 무척 신기하고 재미있어 집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이 여러 가지 반찬 만들기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북농협은 농가 인구의 주체인 결혼이민여성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기초농업교육 및 1:1 맞춤형농업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9월 전북 기업경기조사 결과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2018년 9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440개 업체를 대상)로 조사 결과를 밝혔다. 2018년 9월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 BSI는 59로 전월(56)보다 3p 상승, 10월 업황전망 BSI(63)도 전월에 비해 7p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018년 9월 제조업 업황 BSI는 73으로 전월과 동일, 10월 업황전망 BSI(78)는 전월에 비해 1p 상승했다. 또한, 9월중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35.9%), 인력난, 인건비 상승(12.8%), 불확실한 경제상황(12.0%) 등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월 비교시 내수부진(31.2%→35.9%), 불확실한 경제상황(8.5%→12.0%) 등의 응답 비중은 상승한 반면, 인력난·인건비 상승(16.1%→12.8%), 원자재가격상승(5.6%→4.0%), 수출부진(9.3%→8.5%), 환율요인(5.2%→4.9%) 등의 응답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제조업에서는 전북지역 2018년 9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66으로 전월(60)보다 6p 상승, 10월 업황전망 BSI(65)도 전월에 비해 1p 상승한 것으로 밝혔고 전국 2018년 9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76으로 전월보다 2p 상승, 10월 업황전망 BSI(77)는 전월과 동일함으로써 나타났다. /김영태 기자

강신주 철학박사가 들려주는 '삶의 주인이 되는 길'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지역 청소년과 함께하는 'JB인문학 콘서트' 강연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주)은 오는 13일 전북은행 본점 3층 강당에서 도내 청소년 도민들을 대상, 제3회 2018 JB 인문학 콘서트를 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감정수업',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등 다양한 인문학 도서를 저술한, 인문학계 최고의 인기 저자 강신주 철학박사가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한 시간-삶의 주인이 되는 길' 주제로 '인문학 콘서트'를 펼칠 계획이다. 강신주의 다산담, 철학이 필요한 시간, 상처받지 않을 권리 등 베스트셀러를 펴낸 그는 돌직구 화법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다수의 tv 프로그램 출연, 강연을 통해 대중에게 철학을 조금 더 쉽게 소개하고 직접 소통하는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강연에서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인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게 타인의 잣대에 맞춰 살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고 '내 삶의 주인 내가 되기' 위한 철학적 성찰의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관계자

는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문학 콘서트 특강을 통해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인문학 콘서트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도민을 위해 JB 카드 콘서트 티켓 및 도서 추천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으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연 관람은 전북 도민 누구나 무료 가능하고 접수는 10월 10일까지 전북은행 또는 회공현부 홈페이지(www.jobank.co.kr) 또는 각 영업점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이나 단체접수는 전북은행 사회공헌부 250-749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연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